

S-Oil, 보훈성금 5200만원 전달

S-Oil 울산복지재단은 6월30일 박맹우 울산시장에게 보훈성금 5200만원을 전달했다.

울산시는 성금을 상이군경회와 국가유공자 유족회 및 미망인회, 무공수훈자회, 고엽제전우회, 6.25참전유공자회, 베트남참전전우회,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8개 보훈단체에 5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.

또 저소득 보훈가족 10가구에 대해 1년 동안 나눠 총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.

S-Oil은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2007년 울산복지재단을 설립하고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, 불우이웃, 사회복지시설, 장애인단체, 불우청소년 등에게 생활비와 쌀, 유류 등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도 직접 구매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8/07/01>